

정례브리핑

2020.7.29(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합과 상생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월북한 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북한 측과 접촉해서 송환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행안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입장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일 유엔 측과 법인 사무검사 관련해서 면담 예정돼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일부의 입장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신지 하나와요.

또 별개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단체 쪽에서는 아직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내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의 요청에 따라 내일 오전 중에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시간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화상면담에서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하여 최근 북한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 내용이 뭐였지요?

<질문> 비영리 민간단체 자료제출 관련해서 단체 측에서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통일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강제적인 수사도 아니고 강제적인 조사도 더더욱 아니며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내일 그래서 이루어지는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통일부가 밝힐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예, 그것 관련해서 현안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특별보고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밖의 북한 인권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양자 간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언론에 보도가 된 사안인데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에 재입북을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입국한 사례가 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될지 해서요.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통계만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직은 준비돼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 5명이 재입국할 때요. 그때는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제가 그 통계수치만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 WHO가 9일까지 북한에서 610명의 격리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탈북민 월북 사태 이후에 북한의 코로나19 동향이나 우리 정부의 의료협력 방안이 구체화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탈북민 재입북 이후에 북한당국은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해서도 '의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의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 파악하고 계시나요?

<답변> 북한당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이 진행한 브레인스토밍 외 추가일정이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11시에 임명식이 있고 또 내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밖에 비공개 일정이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